

# OxyChem, 발암물질 배출 벌금형

## PVC 플랜트에서 Vinyl Chloride 배출 ... 벌금 및 환경 프로젝트 대체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PVC(Polyvinyl Chloride) 플랜트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매개공간이동(Media-Shifting) 위반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OxyChem에 펜실베이니아주 Pottstown 소재 PVC 플랜트의 배출규제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달러를 부과했다.

EPA Region III는 다중전달매체 조사를 통해 OxyChem의 위반혐의를 발견했는데, 다중전달매체 조사는 공기 중에서 수증으로의 이동과 같이 오염물질이 한 매개공간에서 다른 매개공간으로 이동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OxyChem의 Pottstown 소재 PVC 플랜트는 폐수처리 유니트에서 오염물질이 공기 중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EPA Region III에 따르면, PVC 플랜트 보유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EPA가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EPA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PVC 기업들이 재정적 책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PA는 펜실베이니아주 외에 다른 지역의 PVC 플랜트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7개 플랜트에 대한 조사를 끝마쳤으며 2004년 7월 초 텍사스주에 있는 한 PVC 플랜트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xyChem은 15만달러를 벌금으로 지불하고 Vinyl Chloride 배출량을 약 38% 줄이기 위한 프로세스 전환에 드는 최소비용 85만달러를 포함해 오염감축 프로젝트에 9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Vinyl Chloride는 인체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OxyChem은 또한 Pottstown 플랜트에 대한 Title V 가동 허가증을 수정함으로써 Vinyl Chloride 배출량을 75톤에서 48.5톤으로 감축하고 수정된 배출허용제한으로부터 발생한 배출감축 크레딧(Credit)을 포기하는데 합의했다.

OxyChem은 법에 따라 100만달러 상당을 벌금으로 부과해야 했으나 EPA는 벌금 대신 환경보호 프로젝트가 더 가치 있다고 보고 벌금을 줄이고 환경 프로젝트 투자로 벌금을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04/08/31>